

경쟁과 완벽주의: 나는 왜 항상 패배하는가

일 시: 2020년 9월 24일 (목) 21:00

장 소: 온라인 화상회의

발 제: 김현래

오늘 토론의 주제는 '경쟁과 완벽주의: 나는 왜 항상 패배하는가'라는 주제로 김현래 발제자가 발표하였습니다. 발제자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경쟁은 사람들을 고취시키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것을 창발시킨다. 그러나 이는 경쟁의 선순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체감되는 경쟁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경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퇴시키며, 안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할수록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여가고, 경쟁은 치열해진다.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얻는 것에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의 룰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컨닝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순수히 공부를 하여 점수를 얻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룰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누구나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유불리가 정해져있기에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 혹은 경쟁에 치열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태된 사람들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태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노력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그 경쟁은 그들에게 불공정하고, 힘겨울 일로 여겨진다. 참고 견디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능이다.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것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기 싫은 것이다. 만약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겪는 고통만큼을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겪는다면 노력을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그 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은 그 경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룰을 창조하고,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자신이 언제나 패배하는 것이 아닌 성공할 수 있는 룰을 창조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자신이 경쟁에서 도태되었다고 느끼고, 무능력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경쟁에,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룰 자체를 의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제자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경쟁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경쟁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경쟁에 참여하기에 앞서 이 경쟁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돌아쳐볼 필요가 있다.
2. 경쟁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그 경쟁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제 3의 길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기거나 지거나의 문제가 된다.
3.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공통된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쟁에 앞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경쟁을 통해 얻어야만 하는 것이냐는 자각이다. 경쟁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경쟁의 목적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 목적을 얻고 싶어한다고 믿으며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목적에 대해, 그리고 경쟁의 필요유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면 많은 경우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인 경우가 많다.
4. 경쟁을 원하는 사람들 혹은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경쟁에 참여하기 보다는 먼저 그 경쟁이 필요하다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발제자의 발표에 의해 나온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다.

- ✓ 경쟁은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또한 경쟁은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 ✓ 경쟁은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기에 경쟁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는 경쟁에서 도태되고, 경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경쟁의 선한 측면을 부각시켜 경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 ✓ 자신이 처해있는 경쟁을 비판하지만 비판하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경쟁분야에서 이미 경쟁을 통한 수많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긴 수많은 치킨집과 다양한 배달 서비스는 경쟁을 통해 우리가 얻는 수혜이다.

발제자는 이에 대해 경쟁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먼저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발제자의 논점에서 드러났

듯이 삶에서 언젠가 경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경쟁이 과연 필요한 경쟁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에 따르면 자유주의에서 경쟁의 이점은 다양성과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경제의 발전을 통한 이익, 나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쟁을 강조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동의된 지점은 개인성의 자각, 개인이 느낀 것에 대한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